

양	육	학	교	
---	---	---	---	--

"	맥	락	으	로
---	---	---	---	---

	본	문		
--	---	---	--	--

이	해	하	기	"
---	---	---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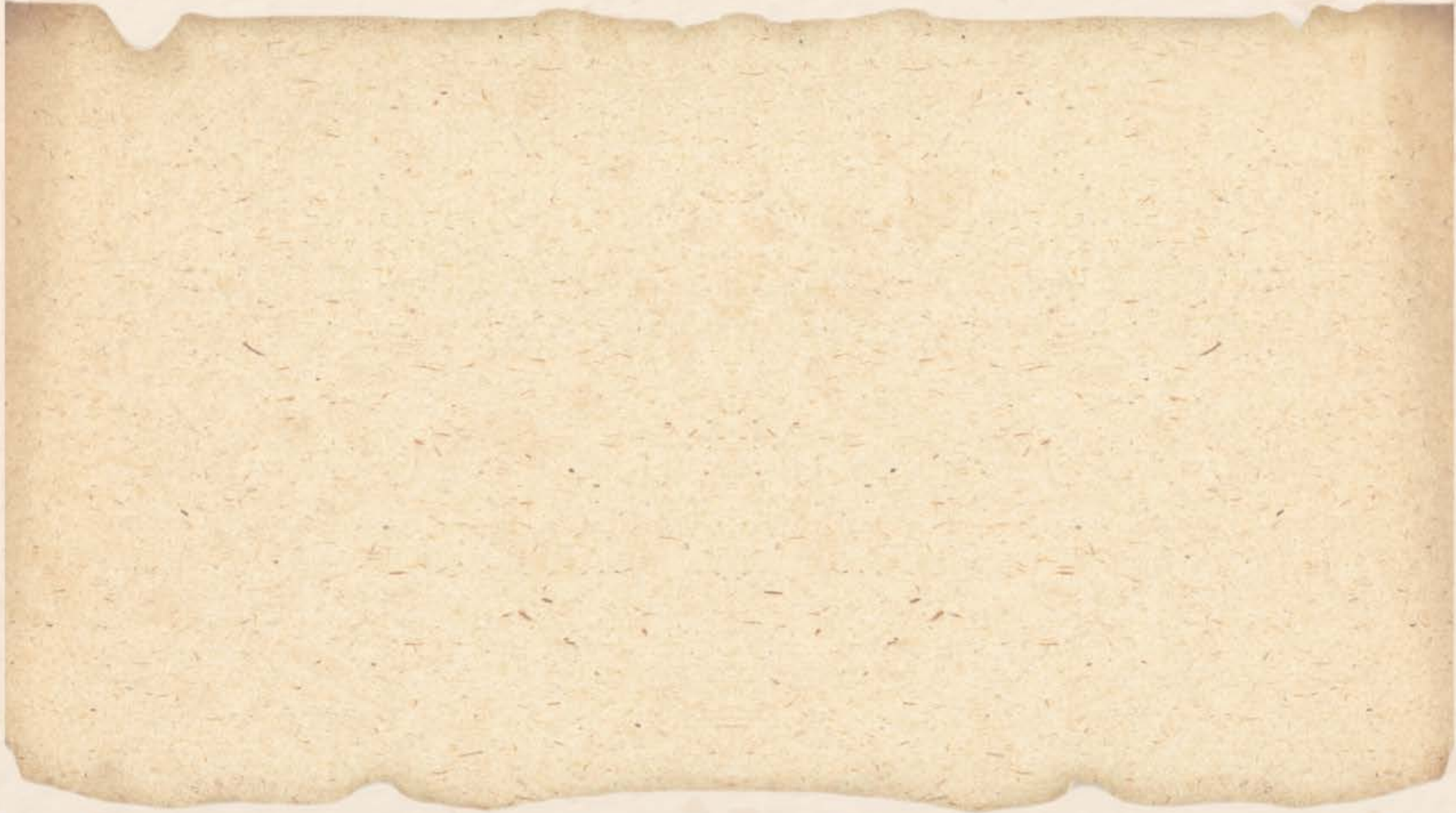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양	육	학	교	
"	맥	락	으	로
	본	문		
이	해	하	기	"

제2강

남을 비판하기

양육학교		
"맥락으로		
본문		
이해하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1)

1. 죄를 가리우는 방패로 사용

과연 그러할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 7:1)

죄를 묻는 이들을 궁지에 몰아 넣고, 윤리적 책임에 대해 정당화 하는 용도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당신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은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나를 비판하는 당신도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기를 멈추시오!

성경의 맥락을 확인하지 않고 적용 및 의미를 부여하는 것 **주의**해야
(조각 낸 말씀의 뉘음이 본문의 본래 의미를 대신할 수 없음)

그러므로 윤리적 방종과 자유를 정당화하는 데 적용하는 것 **부적절함**
(말씀이 윤리적 방종과 그 자유를 정당화한다는 가르침은 100% 거짓)

2.마태복음 7장의 문맥 이해하기

☞ 산상설교 :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과 일치하는 도덕적 기준 선포

☞ 산상설교의 궁극적 목표 → [최고의 계명]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 (신명기 6:4-5)하고

또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레위기 19:18) 의 의미를 반영한

강한 도덕적 윤리를 확립하시키고자 하셨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37-39)

☞ 마태복음 7장 1절의 대상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의 삶을 가로막는 실직적인 예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함

마태복음 7장 1-5절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3.마태복음 7장의 가르침

비판하는 행위 자체 X
위선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죄를 경계하고 없애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잠복해있는 죄에 대해 슬퍼해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서로에게 권면
서로를 향한 권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한 의무

야고보서 5장 19-20절

19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갈라디아서 6장 1-2절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4. 결론

예수님은 윤리적인 판단이나 책임을 묻는 것 전부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결단은
 하지 않으면서, 남을 냉혹하고 교만하며 위선적인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말씀(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과 정면으로 대치되게 해석하는 것이다.

양	육	학	교	
---	---	---	---	--

"	맥	락	으	로
---	---	---	---	---

	본	문		
--	---	---	--	--

이	해	하	기	"
---	---	---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17절